

300-5-126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8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李載裕는 東京 조선노동조합 北部支部 中央委員, 青年同盟, 新幹會 東京支會 委員으로在京 조선인 노동단체 및 사상단체에서 활약중 1928년 2월 16일 검거되어 구류 20일 처분을 받았다. 제4회 조선공산당사건 관계자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고, 계속 활약한 바 있다. 任澤宰는 교회설교 방해, 불온격문 살포, 反帝同盟사건 관련 등으로 공산주의 실천운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卞洪大는 양평청년동맹, 경성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장으로 공산서적을 탐독했으며, 發禁出版物 押收 19회,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기도, 종방제사공장 파업조종 등의 활동을 하였다. 安炳春·李丙驥 등 관련자의 자료가 수록되었다.
- 1934년 5월 26일 李鉉相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경찰에서 진행되었고, 2회는 27일에 있었다. 金鉉 1회도 27·28일, 李晶淑 2회가 29일 있었고, 金在東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30일 李景仙, 31일 李景仙 2회·3회, 元鍾電의 조사가 있었다. 6월 1일 崔小福, 6월 2일 2회 신문조사가 있었다. 6월 3일 李仁行, 4일 邊雨植, 5일 2회, 柳榮京·洪承裕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계속되었다. 6일 金万得·張炳煥·金應鳳, 7일 李載德·李亨植, 8일 李順基, 9일 安千洙, 10일 李相軒·徐昌, 11일 韓東正, 12일 張鉉近, 13일 姜舜求, 14일 任建鎬, 15일 李承吉·金元玉, 16일 方允昌·池在鎬·安浩臣, 17일 慶奭浩·孔成檜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1월 17일 金在善, 1월 25일 閔正女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 6월 21일부터 證人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1일에 梁河錫·金炳善, 23일 金海祚·金孝得, 25일 金晋成, 26일 安炳春의 證據品 차압이 집행되었다.
- 6월 27일부터 피의자 신문조사가 계속되었다. 安炳春 3회가 있었고, 28일에서 30일 사이에 피의자 소행조사 보고가 있었다. 7월 12일 朴公淑·池善章·張基鴻의 證人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7월 12일 李鉉相 3회, 13일 南萬熙 7회, 鄭龍山 2회, 卞洪大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21일 崔小福 3회 조사 후 유치결정이 있었다. 21일 李仁行 2회, 邊雨植 3회, 南萬熙 8회, 任澤宰 3회, 鄭龍山 3회, 辛海甲 2회, 金良仙 2회, 安炳春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모두 유치결정이 있었다. 7월 21일 李景仙 4회의 조사가 있었고, 李百萬 3회, 金三龍 3회, 李鉉相 4회, 鄭七星 3회, 李丙驥·李順今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유치결정이 있었다.
- 1934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청취조사, 증인신문 등 각 증거자료에 의하여 검사국 검사정 앞으로 기소의견 불기소 기소중지처분의 의견서와 같이 송치되었다.